



3강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12장 (표적의 책)

표적과 증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하신 예수

13-21장 (영광의 책)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하신 예수

예수에 대한 증언 1:1-51	성전과 생수 되신 예수 2:1-4:42 가나혼인잔치 니고데모 사마리아여인	생명의 떡이요 빛이신 예수 4:43-8:59 왕의 신하 아들 오병이어 간음한 여인	선한목자요 양의 문이신 예수 9:1-10:42 실로암 소경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11:1-12:50 나사로를 살리심	떠나시기 위한 준비 13:1-17:26 유월절 마지막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다락방 설교(고별설교), 포도나무의 비유 보혜서 성령, 예수님의 증보기도	죽으심과 부활 18:1-21:25 예수님의 체포와 심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남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대중적 사역

제자들을 위한 소수 집중 사역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Sign)

- 1)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2:1-12)
- 2)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4:43-54)
- 3) 38년된 병자를 고치심 (5:1-18)
- 4) 오병이어 (6:1-15)
- 5) 물 위를 건너심 (6:16-21)
- 6) 실로암 소경의 치유 (9:1-41)
- 7)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11:1-44)

요한복음의 표적의 패턴 : 표적 > 사람들의 오해 > 예수님의 강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1:50-51)

표적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다.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 '**세메이온**'(σημεῖον)은 '**sign**'을 의미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적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요2:1)

가나의 혼인잔치는 제 7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제 7일은 창조의 완성, 안식을 의미하며, 첫번째 표적이 7일에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창조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가나혼인 잔치의 배경

1.장소 : 가나(나사렛에서 3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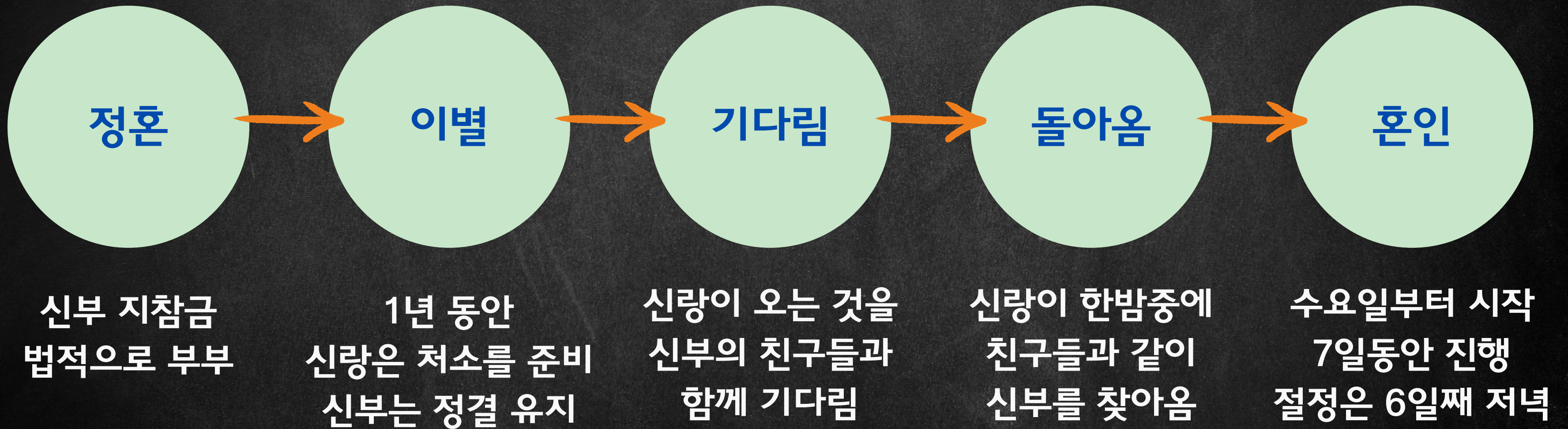
2.참석자 : 예수와 그 제자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요2:1-2)

3.상황 :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요2:3)

4.특이점 : 마리아가 혼인집의 잔치음식
에 관여함, 아주 가까운 친척일 것이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



왜 수요일에 결혼식을 했을까? 창조 셋째 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시104:15)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 랍비들의 어록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음식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를 준비한 가정에 수치스러운 일이다

혼인 잔치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고, 그 가정과 잔치에 기쁨이 사라진 것과 같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같다. 결핍과 수치

마리아의 요청과 예수님의 반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요2:3-4)

‘여자여’라는 헬라어 ‘귀네’는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 존경의 의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일리아드 오딧세이가 그의 아내 페넬로프를 ‘귀네’라고 부름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귀네’라고 부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의 의미

아무 것도 안하시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런데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요7:3-6)

사람들의 요구, 힘을 보여달라는 것에는 응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요7: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요12:23)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17:1)

예수님의 때는 모두 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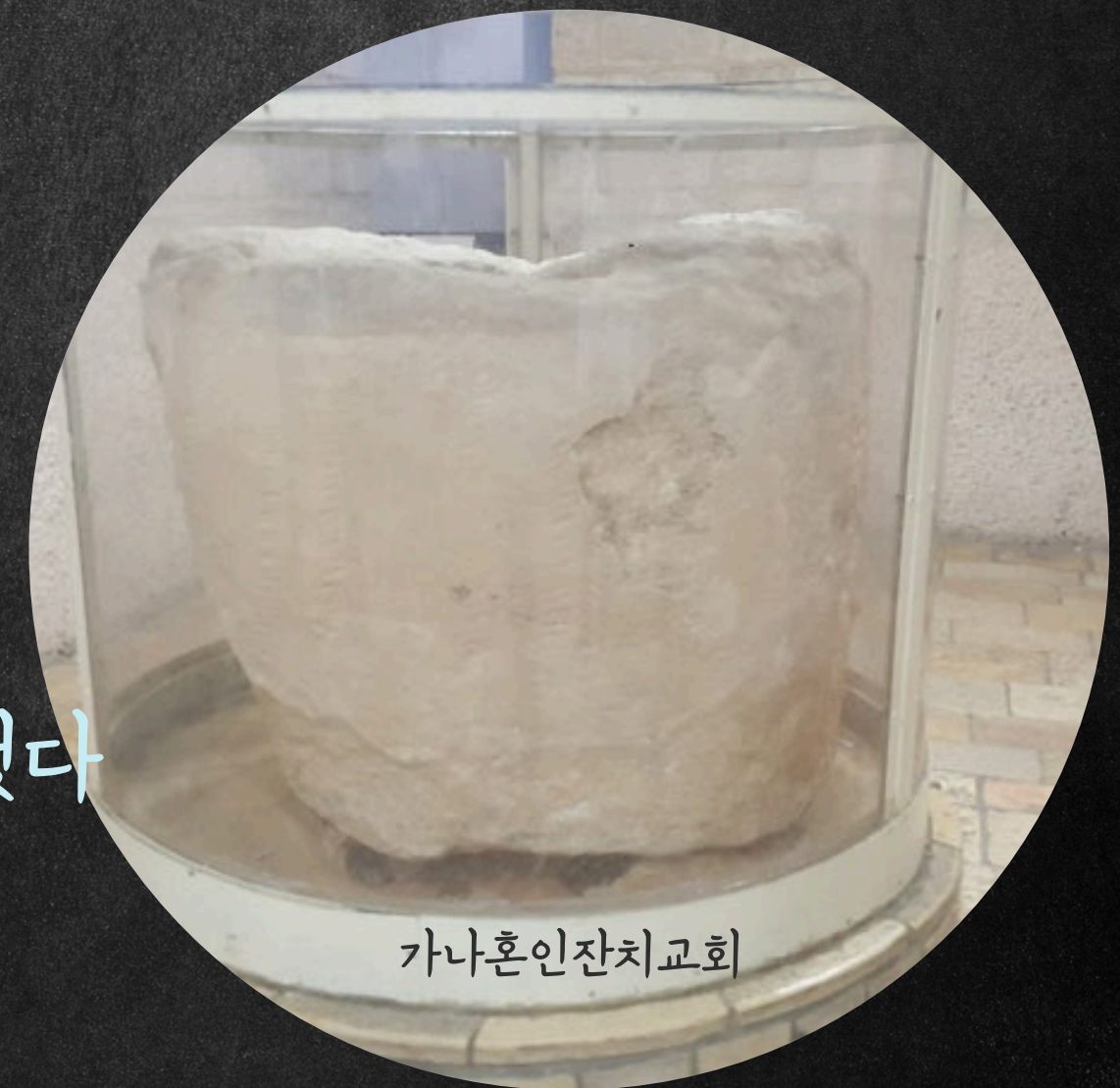
돌 항아리 여섯의 의미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요2:6-7)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가는 방법

- 1. 죄가 아닌 경우 : 물을 사용해서 씻거나 빨아서
- 2. 죄일 경우 : 성막에 예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

예수님 시대에는 밖에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에 손을 씻었다



가나혼인잔치교회

돌 항아리 여섯의 의미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요2:6-7)

돌 항아리 여섯은 유대 종교를 상징

숫자 '7'이 완전이라면 '6'은 결핍, 부족함을 말한다. 6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이다.

유대교의 종교행위로는 참 기쁨,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교 생명을 줄 수 없는 종교, 물을 채워도, 물에 씻어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그 율법과 형식만 남은 종교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새창조의 시대를 여실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항아리는 어디 있는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눅22:20)

: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포도주 항아리가 되셔서 그 잔치를 완성
그렇기에 물(정결례)을 포도주(예수의 피)로 만드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요14:27)

명령하시는 예수님과 순종하는 하인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갓다 주라 하시매 갓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2:8-9)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뤄진다.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한다.

왜 신랑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요한복음은 신랑의 반응을 생략하고 있다.

포도주를 준비하는 신랑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시고, 참 기쁨(포도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요3:28-29)

표적에 대한 반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
이 그를 믿으니라

성전 정화 사건

다른 복음서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에 일어난 일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온다.

시간 : 유대인의 유월절 / 장소 :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요2:13)

사건 : 성전정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요2:15)

유대교 성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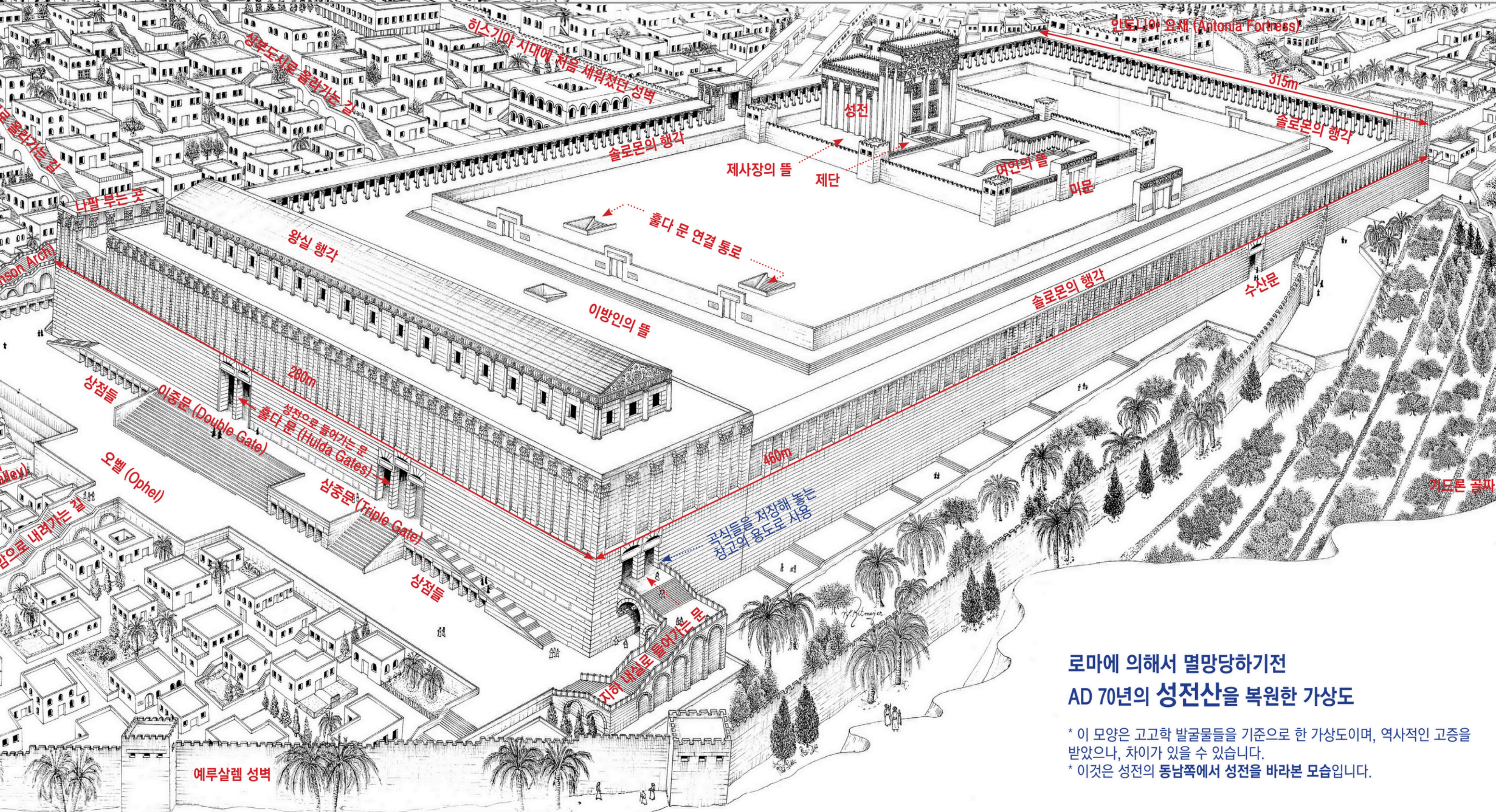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 성전과 제사 중심의 신앙, 유월절이 되면 15만명이 찾음

예수님 당시 성전 :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음

BC20년 경에 짓기 시작해서 AD63년 알비누스 총독 때 완공

AD66년에 시작된 유대전쟁으로 인해 70년에 완전 파괴 됨

규모가 축구장 8개 정도, 기드론 계곡 위에 지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전
AD 70년의 성전산을 복원한 가상도

* 이 모양은 고고학 발굴물들을 기준으로 한 가상도이며, 역사적인 고증을 받았으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성전의 동남쪽에서 성전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ΜΗΘΕΝΑΛΛΑΜΟΓΕΝΗΕΙΤΟΡΕΥΕΙΘΑΙ
ΕΝΤΟΕ ΤΟΥΤΕΡΙΤΟΙΕΡΟΝΤΡΥ
ΦΑΚΤΟΥΚΑΙΤΕΡΙΒΟΛΟΥΟΙΔΑΝ
ΑΗΦΘΗΑΥΤΟΙΑΙΤΙΟΕΕΤΑΙ
ΔΙΑΤΟΕΞΑΚΟΛΟΥΘΕΙΝ
ΘΑΝΑΤΟΝ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Q. 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폐기)하셨는가?

1. 유대교 성전의 변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요2:14)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요2:16)

성전에 사용될 수 있는 '세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출 30:13-14)



로마의 화폐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했으며 환전상들은 수수료 50%를 받아 부를 축적했다

제물을 파는 시장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성전 근처에서 사야만 했다. 준비해서 오더라도 도중에 병들거나 상하면 제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감람산에 희생제물을 파는 시장이 네 곳이나 있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자신이 관장하는 시장을 만들고**, 시장의 제물이 아니면 수시로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사람들이 아예 가축을 가져올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채찍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요2:15)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은 양이나 소, 제물이다.

그 자리를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신다.

성전정화(폐기) 사건의 의미

유대교 성전이 끝났음을 알리신 사건이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도끼가 뿌리에 놓인 것도 모르고
흥청망청하는 종교권력을 향해 사망선고를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
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2:19-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2:19-21)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 일으키리라 = 다시 살리다!
즉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제물을 갖고 성전에 나아갈 필요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건에 대한 반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요2:22)